

심층분석보고서

현대차증권-IT

2026.04.19

[1장] 산업 분석 — 한국 증권업과 증권 IT의 지형 변화

시장 구조와 자기자본 경쟁 지도 — 10대 종투사의 절대 지배

한국 증권업은 약 60개 증권사가 경쟁하는 구조이며, 이 중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10개사가 자기자본의 약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는 "규모의 경제"가 곧 "규제 허가의 경제"와 맞물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종투사 지정, 초대형 IB 지정, IMA(종합투자계좌) 지정이 모두 자기자본 규모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형사는 동일한 사업 기회에 접근하는 출발선부터 불리한 구조적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별도기준 자기자본 순위는 한국투자증권 12.02조원(1위), 미래에셋증권 10.31조원(2위), NH투자증권 8.37조원(3위), 삼성증권 7.39조원, 메리츠증권 7.19조원, KB증권 6.86조원, 하나증권 6.11조원, 키움증권 5.79조원, 신한투자증권 5.63조원, 대신증권 3.73조원(10위) 순입니다. Top 10 합산 자기자본은 약 73.4조원에 달하며 전년 대비 9.8조원이 증가했는데, 이 증가분의 약 76%(7.4조원)를 대형사가 가져간 반면 중소형사는 자본 축적 속도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증권업은 "부익부 빈익빈"이 제도적으로 가속화되는 산업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신용평가 분류상 중소형사는 약 18개사(현대차증권, 신영, 교보, IBK, 유안타, 한화, DB, 유진, LS, SK, BNK, 다올 등)로 구성됩니다. 현대차증권은 자기자본 약 1.49조원(2025년 6월 말 유상증자 후)으로 중소형사 중 상위권에 위치하지만, 10위 대신증권(3.73조원)과의 격차가 약 2.2조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종투사 진입"이라는 다음 단계로의 도약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지원자는 이 냉정한 숫자를 인지한 상태에서 "그러면 현대차증권은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025년 역대 최고 실적과 ROE 반등 — 호황의 편중

2025년 증권업 전체 순이익은 9.2조원으로 기존 최고치였던 2021년(8.5조원)을 넘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나이스신용평가). 이는 표면적으로는 증권업 전반의 훈풍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호황의 편중"이 선명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누적 TTM ROE는 8.6%로 전년 대비 1.0%p 상승했고, 연간 영업이익 1조원을 넘는 "1조 클럽"이 전년 1곳에서 5곳으로 확대되었습니다(미래에셋 1.92조+61%, 키움 1.49조+35%, NH 1.40조+58%, 삼성 1.38조+14%, 한투 약 2.4조+102%).

브로커리지 측면에서는 1월 국내주식 일평균 거래대금이 62.3조원으로 전년 1월 17조 대비 339% 증가하며 수수료 수익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 수치는 증권업이 본질적으로 "거래대금 의존형 사업"임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나 이 호황은 대형사 중심이며, 중소형사는 자기매매(PI) 비중이 32%까지 상승하며 변동성에 노출되고 부동산 PF 총당금 부담이 여전히 큼니다.

여기서 읽어야 할 함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증권업 전체의 호황이 현대차증권 같은 중형사에게는 "제한적 수혜"로만 귀결된다는 점, 다른 하나는 자기매매 비중 증가가 시장 변동성에 따라 실적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2024년 4분기 시장금리 급등으로 현대차증권 채권 부문이 부진해 영업이익이 전년비 46% 감소한 것이 이 구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따라서 IT 지원자는 "실적 호조"를 단순 반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역에서 어떤 기술이 변동성을 낮춰주는가"라는 기술적 관점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초대형 IB·IMA·ATS — 시장 구조의 3대 재판

심층 분석 보고서: 현대차증권-IT

2025년은 증권업 인프라가 3개 축에서 동시에 재편된 해입니다. 첫째, 2025년 3월 4일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정식 출범하며 한국거래소(KRX)의 62년 독점 구조가 해체되었습니다. 34개사가 출자했고, 거래시간은 08:00~20:00로 확장되었으며, 수수료는 KRX 대비 20~40% 저렴합니다. 중간가호가·스톱지정가호가 신설되었고 출범 2개월 만에 점유율이 30%에 근접했습니다.

ATS의 의미는 단순히 "새 거래소 하나가 생겼다"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복수 거래소 체제에서는 같은 종목이 두 개 이상의 시장에서 동시에 거래되므로, 증권사는 고객 주문을 어느 시장으로 라우팅할지를 실시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SOR(Smart Order Routing) 엔진이며, 가격·수수료·체결 속도를 종합 고려해 최적 시장을 선택하는 로직은 모든 증권사 IT의 2026년 최대 공통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중형사 입장에서는 SOR 자체 개발 vs 코스콤 표준 활용 vs 외주 SI 중 선택의 문제가 남아 있고, 현대차증권은 자원 제약 속에서 어느 경로를 택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둘째, 2025년 11월 19일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IMA(종합투자계좌) 1호로 지정되어 제도 도입 8년 만에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증권사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 열렸습니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 예탁금을 통합 운용해 원금 보장에 가까운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로, 사실상 증권사판 증권사에 가깝습니다. 현대차증권은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IMA 시장에 직접 진입할 수는 없지만, 대형사 IMA가 확산되면 중소형사 리테일 예탁금이 대형사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셋째, 키움증권(2025년 11월)과 하나증권(2025년 12월)이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며 초대형 IB가 6개사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세 흐름은 대형사 쏠림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중소형사의 전문화·특화 전략을 강제합니다. 현대차증권 입장에서는 퇴직연금·캡티브·ESG라는 세 영역에서 어떻게 "전문화된 정체성"을 디지털로 구현할지가 결정적 과제가 됩니다.

STO 법제화, 마이데이터 2.0, 망분리 완화의 동시 진행

IT 관점의 최대 변수는 규제 프레임 전환입니다. 2026년 1월 15일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토큰증권(STO)이 제도화되었고, 공포 후 1년(2027년 1월경) 시행 예정입니다. 분산원장의 법적 효력,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사 유통 허용이 개정의 핵심이며, KB·NH·미래에셋· 신한·삼성·하나·키움 등이 플랫폼 확보 경쟁에 돌입했고, 코스콤은 공동플랫폼을 9개사로 확대 운영 중입니다.

STO는 "증권사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상품을 발행·유통할 수 있게 되는 변화"라는 표면적 의미를 넘어, IT 관점에서는 "분산원장 시스템과 기존 원장 시스템의 통합"이라는 근본적 아키텍처 과제를 제기합니다. 즉, 현대차증권이 1,000억원을 투입해 구축 중인 차세대 원장이 2027년 STO 시행 시점에 분산원장 연계 기능까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 재개발이 아니라 미래 확장성을 고려한 아키텍처 설계를 요구하며, IT 지원자 관점에서는 "현대차증권의 차세대 프로젝트가 단순 현대화가 아닌 전략 투자"임을 설명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2025년 6월 19일 마이데이터 2.0이 시행되어 업권 단위 일괄 연결, 50개 제한 철폐, 휴면예금·보험금 포함 등 범위가 대폭 확장되었고, 2025년 5월 기준 이용자는 1.65억명(14세 이상 1인당 3.5개 서비스)에 달했습니다. 마이데이터 2.0의 실무적 함의는 "개인 고객의 금융 데이터가 더 많이·더 자주 증권사 플랫폼을 통해 흐르게 된다"는 것이며, 이는 MTS의 단순 거래 기능을 "통합 자산관리 대시보드"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이자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보안 규제 준수 부담을 가중시키는 양날의 검입니다.

2026년 1~2월에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이 사전 예고되어 내부업무용 SaaS 활용 시 망분리 예외가 법제화되었습니다. 이것은 금융권 IT 역사에서 획기적 변화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금융권 IT가 클라우드

심층 분석 보고서: 현대차증권-IT

네이티브로 나아가지 못한 가장 큰 장벽이 망분리 규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망분리 완화는 증권사가 공개 클라우드의 AI-데이터-협업 서비스를 내부 업무에 광범위하게 도입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었고, 동시에 기존 핵심업무 RTO 3시간, 재해복구훈련 연 1회 의무, 책임이행보험 한도 10억원 상향(2026년 2월) 기조는 유지되어 "유연화 되는 도입, 엄격해지는 책임"이라는 이중 트렌드가 형성되었습니다.

차세대 원장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의 구조적 배경

증권사 IT 투자 1순위는 단연 차세대 원장시스템입니다. 기존 C 기반 모놀리식 + Oracle RAC + Unix(AIX/HP-UX) 구조가 한계에 봉착하며, Java 기반 + MSA + 클라우드 네이티브 + Linux로의 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카카오페이증권이 업계 최초 MSA 원장을 구축했고, 코스콤은 "차세대 금융프레임워크(FICO)"를 공급 중입니다.

왜 C에서 Java로 가는가에 대한 근본적 이해가 중요합니다. 첫째, 개발 인력 문제입니다. C 기반 레거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개발자의 풀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둘째, 개발 생산성입니다. Java-Spring 생태계는 풍부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신규 기능 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킵니다. 셋째, 유연성입니다. MSA 구조로 가면 각 기능(주식 매매·해외주식·파생·연금 등)을 독립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어, 전체 시스템을 멈추지 않고 부분 릴리즈가 가능합니다. 이는 "공모주 상장일 폭주"와 같은 특정 영역의 트래픽 급증에 대해 해당 모듈만 탄력적으로 스케일업할 수 있는 구조적 장점으로 이어집니다.

글로벌 사례인 골드만삭스·JP모건은 Java 재작성으로 계산시간 30% 단축, 비용 80% 절감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IDC는 2026년 국내 금융권 퍼블릭 클라우드 활용률을 56%(2025년 46%)로 전망했습니다. 토스증권은 AWS EKS 멀티클러스터로 미국옵션 실시간 시세를 구현하며 금융권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기술적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반면 2022~2025년 주요 9개 증권사에서 MTS/HTS 전산장애가 194건 발생(배상액 53억원) — 공모주 상장일 트래픽 폭증 대응이 고질적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 두 숫자(기술 가능성 vs 실제 장애)의 갭이 곧 "IT 투자의 당위성"을 구성합니다.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면접에서 "증권업 최근 1년 트렌드"를 물으면 ATS·IMA·STO·마이데이터 2.0·망분리 완화의 5개 키워드를 한 세트에 답하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특히 ATS 출범에 따른 SOR(Smart Order Routing) 구축이 모든 증권사의 IT 공통 현안이며, 중형사인 현대차증권은 "대형사 대비 자원 제약 → 코스콤 표준 프레임워크 활용 + 클라우드 아웃소싱 + 핀테크 협업"이라는 현실적 경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맥락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이 다섯 트렌드가 "동시다발적으로 2026~2027년에 몰린다"는 타이밍 관점을 강조하면 "왜 지금 차세대 투자가 중요한가"에 대한 답변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자소서에서도 "증권업 IT 트렌드"를 단순 나열하지 말고, 반드시 "이 트렌드가 현대차증권에 어떤 의미인가"로 연결하는 서술 구조를 권장합니다.

[2장] 경쟁사 지형과 현대차증권의 중형사 포지셔닝

자기자본 순위와 Peer Group 재정의

현대차증권은 2025년 6월 말 자기자본 약 1.49조원으로 증권업 15~16위권, 중소형사 상위 그룹에 위치합니다. 한국신용평가 Peer Group 기준 비교 대상은 유진투자증권, IBK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DB금융투자, 유안타증권, BNK투자증권, SK증권, 다올투자증권 등입니다. 이들 중소형사의 공통 고민은 네 가지 구조적 제약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자기자본 규모 열위로 IB 딜 사이즈가 제약됩니다. 대형사가 수천억~수조원 딜에 단독 주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반면, 중소형사는 공동 주관·후순위 참여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리테일 브랜드 파워 부

심층 분석 보고서: 현대차증권-IT

족으로 MTS 경쟁에서 열세입니다. 토스·카카오페이증권 같은 플랫폼형 증권사가 2030 세대를 빠르게 흡수하는 동안, 전통 중형사는 50~60대 기존 고객 기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부동산 PF 의존도가 높아 2023년 이후 총당금 부담이 집중되었습니다. 넷째, IT 투자 규모 제약으로 차세대 시스템·AI·클라우드 도입에 대형사 대비 늦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구조적 제약 속에서 중형사는 각자 다른 차별화 경로를 선택해 왔습니다. IBK투자증권이 중소기업 특화 기반으로 신사업을 발굴하고, 하나증권이 발행어음 인가로 초대형 IB에 합류하며, 교보증권·우리투자증권이 채급 키우기를 시도하는 식입니다. 현대차증권의 선택은 "현대차그룹 캡티브 기반 퇴직연금 특화 + ESG 리더십 + 디지털 전환"이라는 3축 포지셔닝입니다.

현대차그룹 캡티브의 양면성

현대차증권의 가장 큰 차별점은 현대차그룹 계열 증권사라는 정체성입니다. 주주 구성(2025년 유상증자 후)은 현대자동차 22.17%, 현대모비스 13.70%, 기아 3.95%로 특수관계인 합계 39.88%를 차지합니다. 현대차그룹의 4대 금융 계열사(현대캐피탈·현대카드·현대커머셜·현대차증권) 중 유일한 증권업체이며, 2024년 설립된 현대얼터너티브(자산운용)를 포함하면 5대 금융 계열사 구조입니다.

이 캡티브 시장은 퇴직연금 부문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2025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 19.19조원으로 증권사 4위(미래에셋 38조·삼성 21조·한투 20.7조 다음)이며, 이 중 계열사 비중이 77%(2014년 88%에서 하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해석은 "계열사 비중이 하락한다는 것은 현대차증권이 외부 고객을 늘려왔다는 점"이며, 이것은 긍정적 변화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77%가 계열사라는 것은 현대차그룹 임직원 규모(국내 약 10만명)와 퇴직연금 적립 한도가 현대차증권 연금 사업의 상한을 본질적으로 규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캡티브의 양면성은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긍정적 측면으로는 (1)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한 안정적 수익 기반 확보, (2) 그룹 딜(IB·PI) 우선 참여 기회, (3) 브랜드 신뢰도와 신용등급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부정적 측면으로는 (1) 외부 성장 동력 정체, (2) 비계열 고객 확보 경쟁에서 "대형사의 브랜드"와 "핀테크의 편의성" 사이에서 포지셔닝 애매, (3) 그룹 지배구조 변화 시 금융계열사 재편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양면성을 이해한 지투자라면 "캡티브는 자산이지만 동시에 족쇄가 될 수 있다"는 맥락을 인식하고, IT 투자가 바로 이 족쇄를 풀어내는 열쇠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4년 말 유상증자 논란의 전말

가장 첨예한 최근 이슈는 2024년 11월 26일 발표된 2,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입니다. 주당 6,640원, 3,012만 482주 신주(기존 발행주식의 94.9%) 발행 구조로, 당시 시가총액(약 2,440~2,700억원) 수준의 대규모 증자였습니다. 자금 용도는 시설자금 1,000억원(차세대 원장시스템), 채무상환자금 774억원(RCPS 상환), 기타 225억원이었으나 시장은 주주가치 희석을 이유로 격렬히 반응했습니다. 공시 다음날 주가가 13.07% 급락해 7,650원으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논란을 이해하려면 유상증자의 구조를 뜯어봐야 합니다. 기존 발행주식의 94.9%를 신규 발행한다는 것은 주당 가치가 이론적으로 절반 가까이 희석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가 돈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지만, 왜 하필 주가가 낮은 시점에 이 규모로 찍어내는가"라는 의문이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2024년 말 시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주주환원 확대"가 화두였던 시기로, 희석성 유상증자는 정반대 방향의 시그널로 읽혔습니다.

2024년 12월 11~12일 금감원이 자본시장법 제122조에 근거해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효력 정지)를 내렸고, "투

심층 분석 보고서: 현대차증권-IT

자위험 요소 기재 미비"를 이유로 삼았습니다. 이는 이복현 금감원장 체제의 금양·이수페타시스 사례와 함께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규제 정비" 흐름의 일환이었습니다. 금감원의 정정 요구가 어떤 신호인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유상증자 자체를 막은 것이 아니라, "충분한 정보 공시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는 절차적 엄격화 신호였습니다.

결국 2025년 2~3월 완료 — 우리사주 청약률 161%, 구주주+우리사주 청약률 102.78%로 완판(실권주 일반 공모 불필요), 최종 조달액 약 1,620억원(발행가 하향), 3월 19일 신주 상장. 현대자동차(375억원)·현대모비스(231억원)·기아(67억원)가 지분율 방어를 위해 총 673억원 전량 청약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유상증자는 "계획된 1,620억원을 확보하고 그룹사 지분율을 유지한" 성공적 마무리였고, 우리사주 청약률 161%는 내부 임직원의 회사 미래에 대한 신뢰 지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 관점에서 이 사건은 반드시 알아야 할 맥락이며, "유상증자 = 나쁜 일"이라는 단순 이분법이 아니라 "왜 이 시점에 이 규모였는가, 그리고 1,000억원이 IT에 쓰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형근 대표의 재무통 체제와 경영 철학

배형근 대표(1965년생, 고려대 경영)는 2024년 1월 내정되어 3월 주총에서 공식 선임되었고 임기는 2027년 3월까지입니다. 1990년 현대그룹 입사 후 기아 국제금융팀장, 현대차 기업전략실장, 현대모비스 재경부문장(CFO)을 거친 재무통이며, 2026년 3월 금융투자협회 회원이사에 선임되었습니다(임기 2028년 3월).

배 대표의 경력이 주는 함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증권업 출신이 아닌 재무통이라는 점은 "증권업 특유의 공격적 성장"보다 "재무 건전성 중심의 체질 개선"에 방점을 찍는 경영 철학을 예고합니다. 둘째, 현대모비스 CFO 경험은 그룹 시너지 활용 역량을 시사합니다. 셋째, 기아 국제금융·현대차 기업전략 커리어는 대외 네트워크와 전략 수립 능력을 보증합니다. 이런 배경은 "PF 리스크 축소 → 체질 개선 → 차세대 시스템 투자 → 밸류업"이라는 순차적 전략과 잘 부합합니다.

취임 후 자사주를 3회에 걸쳐 약 2억여주 매입(취임 초 11,130주, 2025년 3월 유상증자 구주주 청약에서 120% 초과청약 8,747주, 6월 6,950주 추가)하며 주주와의 이해 일치를 표명했습니다. CEO가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것은 "회사 가치가 현 주가보다 높다고 내부자가 판단한다"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이며, 유상증자 직후 시점의 추가 매입은 주주 소통 관점에서 의도적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전략 방향은 "PF 리스크 축소 → 체질 개선 → 차세대 시스템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 밸류업"으로 요약됩니다. 2024년 11월 발표된 밸류업 계획은 2030년 "업계 최고 고객·주주 가치 실현 증권사" 비전과 함께 배당성장 40% 이상, ROE 10% 이상, PBR 업종 평균 상회를 목표로 하며, 로드맵은 2025년 ROE 4%(달성) → 2026년 7% → 2027년 8% → 2028년 이후 10%입니다. 이 로드맵은 IT 투자 타임라인과 묘하게 일치합니다. 2026년 차세대 원장 완료, 2027년 STO 본격 시행, 2028년 이후 ROE 10% 목표 — 즉, IT 완공 이후의 수익성 개선이 밸류업 목표의 핵심 엔진임을 암시합니다.

2025년 실적 턴어라운드의 구성과 한계

2025년 연결 순이익은 577억원(+59.8% YoY), 영업이익 723억원(+32.2%), 순영업수익 3,812억원(+14.3%)이며 ROE는 4.2%로 목표 4%를 상회했습니다. 분기별로는 1Q 순이익 193억(+89.3%), 2Q 207억(+38.5%), 3Q 122억(+14.7%)으로 1~3Q 누적 522억(+45.9%)을 기록했고, 4Q는 시장금리 급등 영향으로 채권 부문이 부진해 영업이익·매출이 전년비 각각 46%·28% 감소했습니다.

심층 분석 보고서: 현대차증권-IT

3Q에는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개발 관련 소송충당부채 107억원을 반영했음에도 증익을 유지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는 해외 PF의 꼬리 리스크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본업의 이익창출력이 이를 흡수할 정도로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IB 부문은 2025년 순영업수익 846억원(+48.4%)으로 회사채 인수·주선, 데이터센터 투자, 인프라·ESG금융·항공물류 등 비부동산 영역 다각화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센터 투자"라는 항목은 IT 관점에서 흥미롭습니다. 데이터센터 PF는 일반 부동산 PF보다 기술 이해도가 필요한 영역이며, 현대차증권이 이 영역에서 딜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은 IT와 IB의 교차 영역에서 독자적 역량을 구축해 가고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NCR(순자본비율)은 2024년 12월 478% → 2025년 6월 605%로 급개선되었고, 신용등급은 3대 신평사로부터 AA-(안정적)을 유지했습니다. NCR 605%는 규제 하한(100%)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수준이며, 이는 추가 투자·확장 여력을 의미합니다.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유상증자 이슈는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다뤄야 합니다. "1,000억원 시설자금이 차세대 원장에 투입된 것"을 인지하고, 이것이 단순 비용이 아니라 "2027년 STO 시행·ATS 대응·마이데이터 2.0 확장을 감당할 IT 기반 투자"임을 서술할 수 있으면 최상입니다. 면접에서 "현대차증권의 최근 주가 하락과 유상증자 논란을 어떻게 보는가"를 물으면, 주주가치 희석에 대한 단기 시장 반응과 장기 IT 투자의 필연성을 분리해서 균형 있게 설명하는 것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퇴직연금 계열사 의존도 77%는 "안정적 기반"과 "외부 확장 과제"로 양면 해석이 가능하며, 지원자는 IRP 원리금비보장 수익률 업계 최하위(16.05%, 14개사 중 꼴찌)라는 숫자를 인지하고 "비계열 확장 시 상품·운용·플랫폼 3박자 개선 필요"를 언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수치는 외부에 쉽게 찾을 수 있음에도 대부분의 지원자가 모르기 때문에, 면접에서 언급하는 순간 "실제로 이 회사를 깊이 분석한 지원자"로 차별화됩니다.

[3장] 현대차증권 심층 분석 — 사업구조·전략·리스크

사업부문별 수익 구조 해부

현대차증권의 사업부문은 리테일(위탁매매+WM), IB, S&T(세일즈&트레이딩), 퇴직연금의 4개 축으로 구성됩니다. 2025년 조직개편에서 S&T본부가 신설되었고 IB 1~3본부가 IB본부로 통합되었으며, 본부·사업부장 7명 중 6명이 교체되었는데 1970년대생 발탁과 외부 영입이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리테일본부 산하에 연금사업실이 편제되고 WM솔루션팀이 신설되어 "퇴직연금·WM 결합" 전략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조직개편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첫째, S&T 분리는 트레이딩·운용 전문성을 독립 본부로 승격시켜 시장 변동성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둘째, IB 3개 본부 통합은 부서 간 경쟁보다 딜 역량 집중을 택한 결정이며, PF 중심에서 다각화된 IB로의 전환을 조직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셋째, 연금·WM 결합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고객을 WM 고객으로 업셀·크로스셀한다"는 리테일 확장 전략의 구조화입니다.

수익 비중에서 퇴직연금은 브로커리지 수익의 안정적 기반이고, IB는 2023년 PF 부실로 급락했다가 2025년 비부동산 다각화로 회복 중이며, 리테일은 상대적 약점이지만 MTS '내일' 개편으로 반전을 시도하는 영역입니다. S&T는 채권·파생 중심 실적 변동의 주 진원지입니다. 지원자는 이 네 축이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한 축이 흔들리면 다른 축이 메워주는" 포트폴리오 논리로 작동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의 성과와 과제

심층 분석 보고서: 현대차증권-IT

현대차증권의 가장 무거운 숙제였던 부동산 PF는 상당 부분 해소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2022년 영업이익 1,145억원에서 2023년 651억원으로 급감했던 것은 PF 부실이 원인이었고, 배 대표 취임 후 PF 비중 40%→20%로 축소, PF 익스포저 자기자본 대비 74%(2021)→38%(2025)로 대폭 축소, 절대 규모 5,529억원(총당금 반영 후)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2024년 총당금 291억원을 선제 적립했고, 브릿지론 비중은 23.8%(2024)→12.3%(2025)로 축소되며 수도권 본PF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했습니다. 브릿지론과 본PF의 구분이 중요한데, 브릿지론은 토지 매입 단계의 단기 대출로 사업성 리스크가 크고 본PF는 건설·분양 단계의 중장기 대출로 상대적 안정성이 높습니다. 브릿지론 비중 축소는 "리스크 큰 포지션을 우선 털어내고 안정적 포지션 중심으로 재편했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우발채무는 2025년 8,289억원(전년 7,088억 대비 증가), 자기자본 대비 50% 수준이며, 이 중 93%가 매입확약 형태로 질적 리스크가 잔존한다는 IB토마토의 지적이 있습니다. 매입확약(매입보장)은 부동산 PF 채권 만기 시 원금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구조로, 시장이 나빠져 리파이낸싱이 안 되면 증권사가 실제 현금을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즉 "현재는 괜찮지만 특정 시나리오에서는 현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며, 이것이 PF 축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현대차증권을 완전 안전구간으로 보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지점이 현대차증권 리스크 분석의 핵심 포인트이며, 면접에서 PF 관련 질문이 나올 경우 "축소는 인정하되 매입확약의 잔존 리스크"를 균형 있게 언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퇴직연금 부문의 강점과 약점 동시 발현

퇴직연금은 현대차증권의 간판이자 아킬레스건입니다. 2024년 DC 원리금비보장 수익률 24.62%로 증권사 1위, DB 원리금보장 4.01%로 1위를 기록하며 운용 역량을 입증한 반면, IRP 원리금비보장 수익률 16.05%는 증권사 14곳 중 꼴찌, IRP 원리금보장 2.52%도 하위권입니다.

이 엇갈린 숫자가 말해주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DC/DB는 기업 단위로 가입되어 있어 현대차그룹 계열사 중심으로 큰 규모가 관리되고, 운용 주체인 현대차증권이 운용 전문성을 집중 투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 IRP는 개인이 직접 가입하고 상품을 선택하는 구조로, 수익률이 곧 마케팅 수단이자 고객 이탈 여부를 결정짓는 지표입니다. 현대차증권 IRP 수익률이 꼴찌라는 것은 "개인 고객 대상 상품 라인업, 자동 리밸런싱, UX/UI, 정보 제공" 등 플랫폼 경쟁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적립금 19.19조원 중 계열사 의존이 77%에 달하고, DB형(16.4조) 중심이나 DC형(7,427억·+32%), IRP(2.05조·+18.4%)가 급성장 중입니다. DC·IRP는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구조라 운용 역량과 플랫폼 UX가 모두 중요하며, 이 두 영역이 급성장 중이라는 점은 "성장 기회 + 경쟁 심화"의 양면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2025년 말 IRP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 도입은 이 구조적 약점을 기술로 돌파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은 고객이 직접 종목을 고르지 않고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주는 방식으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해 IRP 수익률 개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2대 축 — 차세대 원장과 MTS '내일'

디지털 전환은 두 축으로 진행됩니다. 첫째는 차세대 원장시스템(2026년 완료 목표, 1,000억원 이상 투입, 창사 이래 최대)이고, 둘째는 MTS '내일' AI 기반 전면 개편(2025년 하반기)입니다. MTS '내일' 개편은 장 전·중·후 시간대별 AI 기반 시황·종목 이슈 제공, 보유·관심종목 요약, 주식/퇴직연금/금융상품 통합 원스톱 자산관리가 골자입니다.

MTS '내일'의 특성을 들여다보면 현대차증권의 디지털 전략이 선명해집니다. "시간대별 AI 정보 제공"은 개인 투

심층 분석 보고서: 현대차증권-IT

자사의 일상 패턴(출근 전·점심·퇴근 후)에 맞춰 콘텐츠를 재배열한다는 의미이고, "원스톱 자산관리"는 주식 거래 앱의 범위를 넘어 퇴직연금·금융상품까지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으로 포지셔닝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리테일본부-연금사업실 편제 개편과 정확히 맞물리는 구조이며, 조직-시스템-상품의 삼위일체가 동시에 재설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차세대 원장은 C 기반 레거시를 Java/MSA 구조로 전환하며, 코스콤 FICO 프레임워크 활용 여부와 현대오토에버 연계가 관건입니다. BI Korea 보도에 따르면 2024년 차세대 시스템 개발 예산 약 400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2,000억 유상증자 중 시설자금 1,000억원이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400억원 초기 예산 + 1,000억원 증자 자금 = 총 1,400억원 규모로 해석되며, 이는 중형사 기준으로는 파격적 규모입니다. 대형사의 차세대 프로젝트가 1,500~3,000억원 규모인 것과 비교하면, 중형사로서는 자기자본의 약 9%를 IT 한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집중 전략을 택한 것입니다.

차별화 포인트와 한계의 냉정한 평가

차별화 포인트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현대차그룹 캡티브 마켓 — 그룹 임직원의 퇴직연금·자산주·복지성 금융 상품 연계. 둘째, 퇴직연금 DC/DB 수익률 1위 운용 역량. 셋째, ESG 증권사 중 유일 4년 연속 통합 A등급. 넷째, AA- 신용등급과 중형사 평균 상회 NCR.

한계는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리테일 MTS 가입자 기반 취약 — 대형사(미래에셋·한투·삼성)와 플랫폼(토스·카카오페이) 틈새에서 차별화 어려움. 둘째, 자기자본 1.49조원은 IB 딜 사이즈 제약. 셋째, IRP 수익률 최하위라는 리테일 확장의 걸림돌. 넷째,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소송(107억 총당) 등 해외 PF 꼬리 리스크. 다섯째,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시 금융계열사 재편 가능성 — 정태영 부회장 산하 금융계열사 통합론이 반복 거론됩니다.

이 다섯 한계는 각각 별개의 리스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MTS 취약 → IRP 수익률 꼴찌 → 비계열 확장 어려움 → 성장 정체 → 자기자본 축적 지연 → IB 딜 사이즈 제약 → 수익 다각화 한계라는 악순환 구조가 읽힙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고리가 "MTS-플랫폼·AI 경쟁력"이며,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원장 투자가 단순 인프라 현대화가 아니라 "사업 모델 재구성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현대차증권의 IT 지원자"는 디지털 전환의 의미를 "비용"이 아닌 "생존 전략"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리테일 약점을 극복하려면 MTS·IRP 로보어드바이저·마이데이터의 3각 플랫폼이 작동해야 하고, 이 모든 것이 차세대 원장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면접에서 "현대차증권이 왜 이 시점에 차세대에 1,000억을 쓰는가"를 물으면, "2027년 STO 시행, ATS 거래시간 확장, 마이데이터 2.0 연계, 망분리 완화 대응이 동시에 오는 2026~2027년을 대비한 기반 투자"라고 답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추가로 "투자의 회수 경로는 밸류업 로드맵상 2028년 이후 ROE 10% 달성"으로 연결한다면 경영 맥락까지 통찰한 답변이 됩니다. 자소서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당위성"을 회사 고유 맥락(캡티브 한계·PF 축소·IRP 약점)과 연결해 자기만의 해석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4장] 인재상·조직문화·IT 도메인 선호 인재 특성

공식 핵심가치는 현대차그룹과 100% 동일

심층 분석 보고서: 현대차증권-IT

현대차증권은 별도 회사 고유 인재상 키워드를 운영하지 않고 현대차그룹 5대 핵심가치를 그대로 수용합니다. 도전적 실행(Challenge), 소통과 협력(Collaboration), 고객 최우선(Customer), 글로벌 지향(Globality), 인재 존중(People)의 체계이며, 이는 hmsec.com 공식 '가치체계 > 핵심가치(Core Value)' 페이지에서 확인됩니다. 현대차그룹 공식 채용 포털에서도 현대차증권을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 실행,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강조하는 종합금융투자회사로 소개하며, ESG 평가에서 증권사 중 유일 4년 연속 통합 A등급을 차별 포인트로 내세웁니다. 미션/비전은 "더 나은 금융을 향한 동반자", "한 발 앞선 금융솔루션", "고객자산의 안정성과 수익성"으로 집약됩니다.

자소서 작성 시 이 5대 핵심가치를 그냥 나열하거나 "저는 도전적 실행의 인재입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지원자의 80% 이상이 하는 전형적 실수입니다. 대신 이 핵심가치를 IT 직무 상황에 구체적으로 번역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도전적 실행"은 차세대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기술 스택을 학습해 적용한 경험으로, "소통과 협력"은 현업-IT 요구사항 번역 사례로, "고객 최우선"은 장애 대응 과정에서 고객 피해 최소화를 우선시한 일화로, "인재 존중"은 팀원-멘토와의 지식 공유 사례로 구체화해야 진정성이 전달됩니다.

그룹 DNA와 금융업의 이중 정체성

현대차증권의 조직 문화는 "현대차그룹 DNA + 금융업 전문성"의 이중 정체성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고객 최우선은 "리테일·IB 고객자산의 안정성과 수익성 양립"으로 번역되며, MTS/HTS 가용성·정확성이 곧 고객감동 KPI로 연결됩니다. 도전적 실행은 차세대 시스템 400억 규모 투자(BI Korea 추정)와 1,000억 추가 투입으로 실행되고, 소통과 협력은 현업(트레이딩·IB·WM·퇴직연금·RM)-IT의 가교 역할로 구체화됩니다. 인재 존중은 외부 IT 인재 영입보다 그룹 순환·그룹 IT 계열사(현대오토에버) 협업 체계 안에서 성장 기회가 정의되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중 정체성이 주는 실제 업무 감각은 이렇습니다. 현대차그룹 DNA 쪽에서는 "체계·위계·문서화·책임소재 명확화·보수적 의사결정"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금융업 전문성 쪽에서는 "실시간 거래·정확성·보안·규제 대응·금융 도메인 지식"이 필수입니다. 이 둘이 합쳐지면 "꼼꼼한 프로세스와 엄격한 통제 속에서 금융 도메인 전문성을 쌓아가는 엔지니어"가 요구됩니다. 빠른 실험과 민첩한 이터레이션을 선호하는 스타트업 DNA와는 결이 다르다는 점을 사전에 이해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조직문화의 장단점 — 현직자 관점의 현실

잡플래닛·캐치·인크루트에 드러나는 현직자 평가는 양면적입니다. 장점으로는 모그룹이 탄탄한 그룹 계열사로서 고용안정성과 브랜드 프리미엄이 있고, "복지 끝판왕", "워라밸 Good" 태그가 확인됩니다. 평균연봉은 자소서닷컴 기준 약 7,274만원, 신입 초봉은 약 4,728만원이며, 캐치 기준으로는 초봉 6,246만원·평균 1.17억원으로 성과급 포함 시 편차가 큼니다(잡플래닛은 5,740만원). 증권사 평균 대비 워라밸이 양호하다는 평이 다수입니다.

이 편차(4,728만원~6,246만원)의 해석이 중요한데, 기본급 기준과 성과급 포함 기준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업 특성상 연말 성과급이 연봉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부서(트레이딩·IB vs IT·관리)에 따라 편차가 큼니다. IT 직군은 수익부서 대비 기본급 비중이 높고 성과급 편차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입니다. 지원자는 "증권사 평균 대비 워라밸 양호"라는 평이 IT 직군에 더욱 부합한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범현대 계열 특유의 보수적·위계적 문화가 일부 남아있다는 외부 평판과 증권업 특유 보수성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인력 규모가 881명(2024) → 918명(2025, 잡플래닛 기준)으로 작아 IT 조직의 신기술 대규모 실험 기회가 대형사 대비 제한적이라는 인식입니다. 반면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채널계·원장계·인프라를 두루 경험할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 성장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대형사에서는 한 명이 MTS만

심층 분석 보고서: 현대차증권-IT

10년, 원장만 10년 하는 스페셜리스트 트랙이 일반적이는데, 중형사에서는 보다 폭넓은 경험이 가능합니다.

증권 IT 직무가 요구하는 6대 마인드셋

증권사 IT는 실시간 금융거래 시스템(주문/체결/청산/결제), 리스크 관리, IB 지원, MTS,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다루므로 선호하는 인재 특성이 분명합니다.

첫째, 안정성·무중단 운영 마인드입니다. 0.001초 지연이 수억원 손실로 이어지므로 Fail-safe 설계와 SLA 99.99% 사고방식, 24/7 on-call 수용이 기본입니다. 이 마인드셋은 "동작하면 된다"는 개발자 관점과 "절대 멈추면 안 된다"는 운영자 관점의 교집합이며, 금융 IT 특유의 보수성의 근원입니다.

둘째, 보안·규제 준수(Compliance) 감수성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금감원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인신용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마인드가 필수이며, 한 번의 보안사고가 영업 인가 리스크로 직결됩니다. 일반 IT에서는 "먼저 개발하고 나중에 보안 점검"이 관행이라면, 금융 IT는 "설계 단계부터 보안·규제 내재화"(Security by Design, Compliance by Design)가 기본 전제입니다.

셋째, 레거시-신기술 균형 감각입니다. COBOL/C 기반 원장계·주문계 레거시와 클라우드·MSA·API의 공존을 이해해야 하며, 1,000억 차세대 구축 과정의 마이그레이션·병행운영 역량이 요구됩니다. 최신 기술만 아는 엔지니어보다 "레거시를 존중하면서 신기술로 점진적 전환을 설계할 줄 아는" 엔지니어가 훨씬 가치 있습니다. 레거시를 "오래된 코드"가 아니라 "수십 년간 검증된 비즈니스 로직"으로 보는 시각이 성숙한 금융 IT 인재의 표식입니다.

도메인 지식과 현업 커뮤니케이션의 결합

넷째, 도메인 이해도입니다. 주문-체결-청산-결제 라이프사이클, FIX 프로토콜, 호가/매칭 엔진, 파생·채권·RP, 퇴직연금(DB/DC/IRP) 업무 흐름 이해가 차별화 요소입니다. 투자자산운용사·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등 금융 자격증은 "금융업을 아는 개발자"를 증명합니다. 신입 지원자가 이런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단순 기술력을 넘어 "이 사람은 금융에 진지하다"는 신호를 강하게 보냅니다.

다섯째, 현업 커뮤니케이션 역량입니다. 트레이더·IB·WM·RM·컴플라이언스와의 요구사항 번역 능력이 필수이며, 그룹사 특유 위계 구조 안에서 합의 도출 역량이 평가됩니다. 현업은 "이런 기능을 만들어달라"는 추상적 요구를 가져오고, IT는 이를 구체적 기능 명세·DB 스키마·API 설계로 번역해야 합니다. 이 번역이 얼마나 정확한가에 따라 프로젝트의 성패가 갈리며, 신입 때부터 요구사항 문서화·회의록 작성·UAT(User Acceptance Test) 주관의 습관을 기르는 것이 장기 경쟁력입니다.

여섯째, 장애 대응·문제해결의 침착함입니다. 트레이딩 시간대 이슈 즉각 트리아지, 로그 분석, RCA(근본원인분석) 작성 능력, 모의 트레이딩·API 기반 자동매매 경험이 실전 경쟁력입니다. 장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빠르게 인지하고, 침착하게 원인을 좁히고, 고객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를 문서화하는" 전 과정의 성숙도입니다. 면접에서 장애 대응 경험을 이야기할 때는 "당황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접근했다"는 태도가 "빠르게 해결했다"는 기술력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장 자격증과 현대오토에버 이해

증권사 IT 지원자의 권장 자격증은 크게 세 범주로 나뉩니다. 필수/기본은 정보처리기사, SQLD, ADsP이며 이는 국내 IT 취업의 기본 관문입니다. 가산 자격증은 정보보안기사, CISA, CPPG, AWS SA-A, 리눅스마스터입니다. 정보보안기사와 CISA는 금융 IT 보안·감사 관점에서 중시되며, CPPG는 개인신용정보 취급 관련 필수 지식들

심층 분석 보고서: 현대차증권-IT

증명합니다. AWS SA-A는 클라우드 전환기에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금융 도메인 자격증은 투자자산운용사,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등입니다. 투자자산운용사는 난이도가 있는 자격증이나 "금융을 진지하게 공부했다"는 신호가 강력합니다.

또 하나 지원자가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은 현대오토에버가 현대차그룹 IT 허브로서 ERP·클라우드·SI·인프라의 그룹 표준을 공급하는 위치라는 점이며, 현대차증권 IT는 이 거버넌스 안에서 독립 영역과 연계 영역을 구분해 운영합니다. "그룹 IT 표준 수용성 + 증권 도메인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인재를 선호됩니다. 현대오토에버는 차량 S/W·인포테인먼트·ERP·클라우드·스마트팩토리를 다루며, 현대차증권 IT가 현대오토에버와 협업하는 영역은 주로 인프라·클라우드·보안·일부 SI 영역입니다. 증권업 고유의 주문·체결·원장 시스템은 현대차증권 자체 IT 조직과 코스콤·외주 SI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이 경계를 이해하고 있으면 면접에서 "그룹 IT 거버넌스 속에서 증권 IT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깊이 있게 답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강력한 프레이밍은 "도전적 실행 + 안정성"의 이중 코드입니다. 개인 영웅담보다 팀 성과 중심 서술이 현대차그룹 자소서 관례에 부합하며, 실시간 처리(초당 수천 건), 가용성(99.99%), 구체적 스택(Spring Boot + Redis + WebSocket + MySQL/Oracle) 기재, 현업-개발자 번역 경험, 보안/규제 관련 학습 이력을 구체적 수치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현대차증권의 IT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차세대 원장·MTS 내일·IRP 로보어드바이저·마이데이터 등 현재 진행형 프로젝트에 대한 관점과 자기 기여안을 구체적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소서의 승부처는 "다른 증권사가 아니라 왜 현대차증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며, 이 답은 결국 회사 고유의 상황(중형사의 자원 제약, 캡티브 기반, 퇴직연금 강점, IT 전환 시점)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5장] 증권사 IT 직무 분석 — 5대 영역과 워크플로우

채널계 — 초당 수만 건 주문과 공모주 대란

채널계는 고객 접점 시스템으로 HTS/MTS/WTS/웹트레이더를 개발·운영합니다. HTS는 C/C++ 기반 Windows 네이티브가 주류이며 일부 증권사가 Mac OS 지원을 확대 중(한국투자증권 2025년 출시)입니다. HTS가 여전히 C/C++ 기반인 이유는 초저지연 데이터 처리와 차트·호가창의 실시간 렌더링 성능 때문입니다. Windows 네이티브는 구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문 트레이더의 멀티 모니터·다중 계좌 동시 조작 환경에 최적화된 선택이기도 합니다.

MTS는 Android(Java/Kotlin)·iOS(Objective-C/Swift) 네이티브 개발이 표준이며, 서버단은 Spring Boot + WebSocket(실시간 호가) + Redis(캐시) + Kafka(시세 스트리밍) 조합이 일반적입니다. 왜 이 스택 조합이 표준이 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WebSocket은 HTTP의 요청-응답 모델이 아닌 양방향 상시 연결을 제공해 호가·체결 이벤트를 푸시 방식으로 전달하는 데 최적입니다. Redis는 인메모리 캐시로 DB 접근 없이 밀리초 단위 응답을 보장합니다. Kafka는 시세 같은 대량 스트림 데이터를 여러 컨슈머에게 병렬 전달하는 데 강점입니다.

WTS는 JavaScript/React + HTML5 기반으로 토스증권이 2025년 출시하며 "설치 없는 거래"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WTS는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브라우저에서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으로, 사용자 진입 장벽을 낮추는 핵심 도구입니다. 가장 큰 운영 과제는 공모주 상장일·시초가 트래픽 폭증 — 2022~2025년 주요 9개 증권사에서 MTS/HTS 전산장애가 194건 발생하고 배상액이 53억원에 달했습니다. 공모주 상장일에 트래픽

심층 분석 보고서: 현대차증권-IT

이 평소의 10~100배까지 급증하기 때문에, 평소 기준의 인프라 설계로는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현대차증권 지원자는 "MTS 내일 개편"을 AI 기능 추가뿐 아니라 트래픽 회복탄력성·장애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공모주 상장일 사전 예측 기반 오토스케일링, 장애 시 고객 고지 자동화, 장애 후 보상 플로우의 시스템화"가 기술적 관전 포인트입니다.

계정계·원장 — C에서 Java, 모놀리식에서 MSA로

계정계/원장 시스템은 고객계좌·매매체결·결제·입출금·정산 등 "증권사의 심장"입니다. 기존 구조는 온프레미스 + 모놀리식 + C언어 + Oracle/Tibero 조합이었으나 노후화로 유지보수·확장성 한계에 부딪혀 Java + MSA + 클라우드 네이티브 + Linux로 전환 중입니다. 코스콤의 FICO 프레임워크, 카카오페이증권의 MSA 도입(2023), 이베스트투자증권의 CHANCE 프로젝트(300억원, LG CNS 주사업자) 등이 대표 사례입니다.

C에서 Java로의 전환은 단순 언어 변경이 아니라 철학의 전환입니다. C 모놀리식은 "하나의 거대한 프로그램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구조라 안정성은 뛰어나지만 변경이 느립니다. 한 모듈을 바꾸려면 전체를 재컴파일·재배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할 위험이 큼니다. Java MSA는 "업무별로 독립된 서비스가 API로 통신"하는 구조라 특정 서비스만 업데이트하거나 스케일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 주문만 트래픽이 급증하면 해외주식 서비스만 서버를 늘리면 되고, 연금 계산 로직을 바꿔도 주식 매매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업무 모듈은 주식매매, 해외주식(소수점·통합증거금), 국내파생(증거금·일일정산·야간시장), 신용대출/결제(용자·대주), 오픈뱅킹 입출금, 권리/청약/배당, 펀드, 채권/RP/CP/CD, 연금저축/ISA, WRAP, 자기매매 등 광범위합니다. 이 많은 모듈을 MSA로 분해할 때 어떤 경계선을 그을지(서비스 분할 기준), 서비스 간 트랜잭션 일관성을 어떻게 보장할지(Saga 패턴, 2PC), 장애 전파를 어떻게 막을지(Circuit Breaker) 등이 설계의 핵심 이슈입니다. 현대차증권의 차세대 원장(2026년 완료)은 이 중 어떤 모듈을 우선 전환하고 어떤 것을 병행운영할지가 관전 포인트이며, 면접에서 "MSA 설계 시 고려사항"을 묻는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계·대외계 — 데이터와 네트워크의 실시간 결합

정보계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BI, CRM, 마이데이터, AI 자산관리, 리서치 지원 영역으로 Oracle·Hadoop·Spark·Python·Airflow 스택에 최근 Snowflake·BigQuery 검토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정보계의 중요성은 근래 급상승 중입니다. 과거에는 "거래 시스템이 본업, 데이터는 보조"였다면 지금은 "데이터가 상품과 서비스의 원천"으로 인식됩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업계 최초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아 'm.All' 통합자산관리를 런칭했고, 한국투자증권의 'MY AI'(1.3억회 시뮬레이션 기반 랩상품 추천)·'AIR' 리서치, 미래에셋 AI솔루션본부(2023년 7월 신설), 키움의 AIX팀·'키움Me', 신한투자증권의 '챗프로'·AI PB, 유진투자증권의 챗GPT 애널리스트 등 AI 자산관리 경쟁이 격화 중입니다.

이 AI 서비스들의 공통점은 "고객 데이터 + 시장 데이터 + 상품 데이터"를 결합해 개인화된 추천·분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대형 언어모델(LLM)과 기존 정량 분석 엔진의 결합이 핵심이며, "환각(hallucination) 방지"와 "규제 준수 답변 생성"이 가장 까다로운 과제입니다. 금융 AI는 일반 챗봇과 달리 "잘못된 투자 권유"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외계는 한국거래소(KRX, Exture+ 시스템), 한국예탁결제원(KSD, 결제·보관·전자증권·STO 총량관리), 금융결제원(KFTC, 오픈뱅킹), 금감원 DART, 코스콤(PowerBase 미들웨어) 연계를 담당하며 FIX 4.x/5.0·FAST·KRX Proprietary Protocol·전용선(금융망)·FEP(Front-End Processor)를 다룹니다. FIX 프로토콜은 글로벌 증권 주문 표준으로, 증권사·거래소·브로커 간 주문·체결 메시지를 주고받는 공용어입니다. FEP는 대외 기관과의 통신 창

심층 분석 보고서: 현대차증권-IT

구 역할을 하는 전용 서버로, 거래 메시지를 내부 원장으로 넘기기 전 단계의 첫 관문입니다. Low Latency 최적화가 핵심 역량이며, ATS 출범으로 SOR(Smart Order Routing) 설계가 2026년 최대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SOR은 주문이 들어왔을 때 KRX와 넥스트레이드 중 어디로 보낼지 실시간 판단하는 엔진으로, 가격·수수료·체결 속도·유동성을 종합 고려한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인프라와 정보보안 — 규제가 설계를 결정한다

인프라는 x86 Linux 전환 가속(Unix 축소), SAN/NAS 스토리지, 이중화·망분리 네트워크, 일부 메인프레임 잔존, 프라이빗/하이브리드 클라우드(NCP 금융존, AWS 금융 레귤러토리 환경) 구조입니다. Unix(AIX·HP-UX·Solaris)는 20년 이상 금융권 표준이었지만 라이선스 비용·인력 고령화로 Linux(Red Hat·Rocky)로 빠르게 이전 중입니다. 다만 Unix에서 돌던 고성능 애플리케이션을 Linux에서 동일 성능으로 돌리려면 튜닝이 필요하고, 이 과정의 안정성 확보가 인프라 엔지니어의 주요 과제입니다.

정보보안은 2025년 2월 5일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이 핵심 프레임인데, Rule 기반에서 Principle 기반으로 전환되었고 핵심업무 RTO 3시간, 재해복구전환훈련 연 1회 의무, 재해복구센터 범위가 2026년 2월 5일부터 일정 규모 여전사·전자금융업자로 확대, 자산 2조원 이상 금투업자 책임이행보험 5억→10억원 상향이 적용됩니다. Rule에서 Principle로의 전환은 "구체적 규정 목록을 모두 지키는" 방식에서 "원칙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해 지키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는 금융회사의 자율적 리스크 관리 역량을 더 강하게 요구합니다.

정보보호 교육시간은 임원 3시간, CISO 6시간, 일반 6시간, IT 9시간, 정보보호담당 12시간으로 세분화되었고 전산실 국내 설치 의무와 무선통신망 금지는 유지됩니다. ISMS-P 인증, 망분리(업무망/인터넷망), DLP, DDoS, DB 암호화, PKI는 기본 통제항목입니다. 각 통제항목의 의미를 신입 지원자가 기본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DLP(Data Loss Prevention)는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모니터링·차단하는 시스템이며, PKI(Public Key Infrastructure)는 공인인증서·거래 암호화의 기반입니다.

하루·월·연 워크플로우의 실제

하루 단위 워크플로우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07:00~09:00 사이에 장 개시 전 시스템 점검, 전일 야간 배치 결과 확인, KRX/KSD 연계 테스트, 시세 FEP 정상 여부 확인이 진행됩니다. 이 시간대가 "증권사 IT의 하루 중 가장 긴장된 시간"이며, 여기서 문제가 발견되면 9시 개장 전까지 해결해야 하는 숨가쁜 프로세스가 돌아갑니다. 09:00~15:30 사이에 장중 실시간 모니터링(APM·NMS), 주문·체결·시세 부하 관리, 장애 발생 시 5~10분 내 1차 대응이 요구됩니다.

15:30~18:00 사이에는 장 마감 후 정산·체결대사·대외기관 송수신 마감에 진행됩니다. 체결대사는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과 체결 내역을 맞춰보는 작업으로, 한 건이라도 불일치하면 원인을 찾아내 정정해야 합니다. 18:00~05:00 사이에는 야간 일일정산·월간/연간 배치·백업·신용·담보 평가·해외주식 주간거래 대응(미국장 22:30~05:00)이 진행됩니다. 해외주식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과거에는 없던 밤샘 운영 부담이 생겼고, 이는 증권 IT의 업무 시간대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월 단위로는 정기 점검(월 1회 휴일 작업), 보안 패치(MS·Oracle·Linux 커널), 현업 요구사항 릴리즈(격주/월 배포), 내부감사·월간 SLA 리뷰가 반복됩니다. 연 단위로는 차세대 프로젝트(3~5년 주기), 신상품 출시 시스템 구축, 재해복구 전환훈련 1회 이상, 연말정산·원천세·과세자료 제출, ISMS-P 재인증(3년), 금감원·외부감사 대응이 루틴입니다. 신입 입사자는 첫 1년 동안 이 루틴을 한 바퀴 경험하면서 증권사 IT의 시간 축을 몸에 익히게 됩니다.

심층 분석 보고서: 현대차증권-IT

이해관계자 맵과 KPI의 실제 구조

내부 이해관계자는 수익부문(리테일/WM·트레이더·IB·홀세일·법인영업), 관리부문(리스크관리·컴플라이언스·감사·재무), 전략(CEO·CIO·CISO·디지털사업실)이며 외부는 규제기관(금융위·금감원·금보원), 시장인프라(KRX·KSD·KFTC·코스콤·신용정보원·KOFIA), 외주SI/컨설팅(삼성SDS·LG CNS·SK C&C·현대오토에버·코스콤·아이티센·INF컨설팅), 벤더(Oracle·Tmax·Red Hat·Cisco·Check Point·안랩·지니언스), 핀테크 파트너(관텍·두물머리·네이버클라우드·카카오엔터프라이즈·하나금융·SK텔레콤 NFI)로 구성됩니다.

이 이해관계자 맵이 주는 실제적 함의는 "증권사 IT 엔지니어의 하루는 코드 작성보다 소통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업과의 요구사항 회의, 외주 SI와의 진행 상황 점검, 벤더와의 장애 대응, 감사·컴플라이언스와의 리뷰가 겹겹이 얹혀 있습니다. 순수 개발 시간은 전체 업무 시간의 30~40%에 불과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커뮤니케이션·문서화·회의에 쓰입니다. 이 현실을 이해한 지원자는 "코딩만 잘하면 된다"는 오해에서 벗어나 종합적 역량을 준비합니다.

KPI는 시스템 가용성 99.99%(연간 다운타임 52분 이내) — 다만 감독규정 공식 지표는 핵심업무 RTO 3시간·재해복구훈련 연 1회 — 장애 건수·등급·MTTR(평균복구시간)·재발률, 프로젝트 일정·예산 준수율·테스트 커버리지·UAT 결함률, 감사 지적 건수·조치 기한 내 완료율, 현업 SLA, 보안 KPI(취약점 조치율·모의해킹 발견율·정보보호 교육 이수율)로 다층화됩니다. 신입이 당장 개인 KPI를 책임지지는 않지만, 팀 단위로 이 지표들이 관리되기 때문에 어떤 작업이 어떤 지표에 영향을 주는지 인지하고 일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대표 프로젝트 7개 유형과 신입 역량 체크리스트

대표 프로젝트 유형은 일곱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차세대 원장(C→Java·MSA), 둘째 MTS/HTS 리뉴얼, 셋째 마이데이터 플랫폼, 넷째 AI 자산관리(로보어드바이저·생성형 AI), 다섯째 STO 플랫폼(2027년 시행 대비), 여섯째 클라우드 전환, 일곱째 Unix→Linux 인프라 현대화입니다. 이 일곱 가지는 향후 3~5년간 국내 모든 증권사가 공통으로 겪는 프로젝트 유형이며, 현대차증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입 지원자가 이 중 어떤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기만의 관점을 준비하는 것이 자소서·면접에서 큰 차별화 요소가 됩니다.

신입 지원자의 기술 역량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기초로 Java/Spring 백엔드, SQL-RDBMS(Oracle·Tibero) 튜닝 기초, Linux 명령어·Shell, Git·CI/CD, 알고리즘·자료구조(코테 대비), 네트워크·TCP/IP·HTTP·WebSocket이 필수입니다. 모바일 직무는 Kotlin/Swift, 데이터 직무는 Python·Pandas·Hadoop/Spark 기초, 보안 직무는 정보보안기사·ISMS-P·전자금융감독규정 속지가 추가됩니다. 금융 도메인 지식으로는 증권 상품(주식·채권·ELS·펀드·파생·해외주식·연금), 매매·결제 프로세스(T+2, 증거금, 예수금·예탁금, 반대매매), 호가·체결 원리(가격·시간 우선순위), KRX·KSD·코스콤 역할 구분, 전자금융감독규정 핵심 조항이 요구됩니다.

특히 T+2라는 용어는 증권 IT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매매가 체결된 날로부터 2영업일 후에 결제(돈과 주식의 소유권 이전)가 완료된다는 뜻이며, 이 2일간의 간격에서 예수금·신용·담보 계산이 이뤄집니다. 이 개념 하나만 이해해도 증권사 시스템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단번에 감이 옵니다. 가격·시간 우선순위는 동일 호가라면 먼저 들어온 주문이 체결되는 원칙이며, 이 원칙이 "주문 처리 속도 경쟁"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면접 활용 포인트 — 답변의 3요소 결합

면접에서 차별화되는 답변은 항상 "숫자 + 도메인 + 현업 맥락"의 3요소를 결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용

심층 분석 보고서: 현대차증권-IT

성 99.99%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해 단순히 이중화·로드밸런싱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주 상장 일 트래픽을 대비한 사전 증설, 장애 공지 프로세스와 보상 플로우 설계, RTO 3시간 법적 요건을 실제로는 30분 내 복구로 관리하는 내부 SLA 이중 구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답변에는 숫자(99.99%·3시간·30분), 도메인(공모주·RTO·SLA), 현업 맥락(장애 시 고객 보상 프로세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설득력이 질적으로 다릅니다.

또 다른 예로 "증권 IT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안정성"이라고만 답하면 평범한 답변이지만, "초당 수만 건의 주문이 지연 없이 처리되어야 하고, 한 번의 장애가 수억원 배상으로 이어지며, 2024년 공모주 상장일에 업계 전체가 194건의 장애를 겪었다는 맥락에서, 안정성은 추상적 가치가 아닌 숫자로 입증되어야 하는 구체적 목표"라고 답하면 완전히 다른 수준의 인상을 남깁니다. 현대차증권의 IT 직무가 "채널·원장·정보·대외·인프라·보안" 중 어느 영역이냐에 따라 답변 각도를 조정하되, "차세대 원장 1,000억 투입의 맥락"을 공통 배경으로 깔고 답하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이 배경을 깔면 모든 답변이 자연스럽게 "현대차증권 고유의 맥락"으로 수렴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레퍼런스 (References)

- 자본시장연구원 — 2026년 증권산업 주요 이슈 —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_view?year=2026&zcd=002001016&zno=1897&cno=6714
- 한국신용평가 — 증권사 부동산PF 익스포저·총당금 분석 (2025.4) — <https://kisrating.com/fileDown.do?menuCd=S1&gubun=P&fileName=ss20250429-2.pdf>
- IDC 전망 인용 시사저널e — 금융권 계정계 클라우드 전환 —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427>
- 삼성SDS Insight — 토큰증권(STO) 개요와 영향 — <https://www.samsungsds.com/kr/insights/what-is-a-security-token-offering.html>
- AWS Tech Blog — 토스증권 미국옵션 실시간 시세 EKS 아키텍처 — <https://aws.amazon.com/ko/blogs/tech/toss-securities-nasdaq-options-realtime-pipeline/>
- 대한금융신문 — 2025년 3분기 증권사 자기자본 현황 Top10 — <https://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920>
- 한국금융신문 — 2025년 1분기 증권사 리그테이블(성장성) —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505261551016017179ad43907_18
- The Bell — 미래·한투 IMA 1호 지정, 초대형IB 제도 8년 만 —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511191551359640106486>
- 한국금융신문 — STO 법제화 3년 만의 시장 개

심층 분석 보고서: 현대차증권-IT

- 화 —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512210819121731dd55077bc2_18
10. 금융위원회 — 마이데이터 2.0 시행(2025.6.19) — <https://www.fsc.go.kr/no010101/84780>
11. 금융위원회 —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SaaS 망분리 예외) — <https://www.fsc.go.kr/no010101/86080>
12. 금융위원회 —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2024.8) — <https://www.fsc.go.kr/no010101/82885>
13. 금융위원회 —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보도자료 (2025.2.5) — <https://www.fsc.go.kr/no010101/83954>
14. 전자신문 — 코스콤 차세대 금융프레임워크·MSA — <https://www.etnews.com/20231130000101>
15. 디지털데일리 — 증권업계 C→Java 전환과 FICO — <https://m.ddaily.co.kr/page/view/2024062611091720819>
16. 한국경제 — 이트레이드증권 CHANCE 프로젝트(원장 자체 이관) —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12071691396>
17. 토스증권 기술 블로그 — 원장시스템과 워라밸 — <https://blog.toss.im/article/work-and-life-balance-of-securities>
18. 이코노미스트 — 증권사 AI 활용 고도화 사례 —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502250073>
19. 서울신문 — 증권사 전산장애 194건(2022~2025) 배상 53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60224030004>
20. EBN — 부동산PF 6차 점검, 178조 익스포저 —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96322>
21. The Bell — 넥스트증권 AI 플랫폼형 MTS 2026 출시 —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504160858341720107376>
22. 아시아에이 — 2025 증권업 결산(PF-IB 쓸림·대형화) — <https://www.asia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394>
23. BI Korea — 2024 금융권 IT 투자 계획(현대차증권 차세대 400억) — <http://m.bi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39152>
24. 뉴스핌 — 코스콤 STO 공동플랫폼 9개사 확대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414000627>
25. 현대차증권 공식 핵심가치 페이지 — https://www.hmsec.com/company/co_info/hmc_value/hmc_value_phil.to?tab=4
26. 현대차증권 모바일 핵심가치·그룹 경영철

심층 분석 보고서: 현대차증권-IT

- 학 — <https://www.hmsec.com/mobile/company/hmg/company05.to>
27. HMG Journal — 현대차그룹 5대 핵심가치 해설 — <https://news.hmgjournal.com/People/hyundai-core-values>
28. 현대자동차그룹 공식 — 현대차증권 그룹사 소개(ESG A·디지털 전환) — <https://www.hyundaimotorgroup.com/ko/group/CONT0000000000000692>
29. 잡플래닛 — 현대차증권 연봉·리뷰 — <https://www.jobplanet.co.kr/companies/20132/salaries/%ED%98%84%EB%8C%80%EC%B0%A8%EC%A6%9D%EA%B6%8C>
30. 자소설닷컴 — 현대차증권 2026년 채용 공고(IT 포함) — <https://jasoseol.com/recruit/103657>